

전 남

하루 '상춘인파' 1천여명

화순 세랑제 '주차전쟁' 몸살

사진동호인 등 북적 ... "관광명소 편의시설 설치"를

'봄풍경 일 번지'로 사진동호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화순군 화순읍 세랑제(堤)에 주차장과 안내표지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일 화순 세랑제 주민들에 따르면 매년 산벚꽃이 피어나는 4월 중순이면 전국에서 하루 500~1000여 명의 사진동호인들이 세랑제를 찾는다. 이들은 대형 관광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세랑제를 찾고 있다. 새벽녘 피어나는 물안개와 함께 거울같이 잔잔한 수면에 반영되는 산벚꽃과 신록이 어우러지는 봄 풍경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세랑제에는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마을입구는 물론 농로 주변, 광주~영남간 도로변에 주차해야 해 매년 이맘때면 주차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

주~영남간 814 지방도로의 경우 수백 대의 차량이 상·하행선 길가에 주차돼 있어 사고위험마저 안고 있다. 3시간이나 걸리는 먼길을 달려온 하현삼(36·경남 거제도)씨는 "풍경 자체는 아름답고 예쁜데 마을에서 세랑제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물론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곳의 절경이 사진동호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2005년경부터이다. 광주지역 '눈 밝은' 사진작가들이 발굴해 하나둘씩 사진을 찍었으나 이후 사진 포털사이트 등에 세랑제 사진이 공개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화순군이 지난 2004년 세랑제 인근에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세웠다가 사진인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되기도 했다. /송기동기자 song@

지는 사진동호인들의 발걸음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세랑제를 관광 명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2년 전 신록 촬영지로 유명한 경북 청송면 부동면에 위치한 '주산지'(注山池)를 찾아 벤치마킹하고, 사진포인트와 주차장 시설 등을 군에 건의하기도 했다. 선종백(60·광주 급효동) 한국사협본부이사는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사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며 "화순군이 주차장 시설과 주변 휴식공간 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국(59) 세랑리 이장은 "전국 사진동호인에게 '세랑제'가 널리 알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세랑제를 찾는 사진 동호인들이 만개한 산벚꽃과 신록이 어우러진 봄 풍경을 양글에 담고 있다./화순=송기동기자 song@



향이 독특한 노지 취나물

20일 고흥군 도화면 들녘에서 주민들이 차가운 겨울해풍을 맞으며 지난 노지 취나물을 채취하고 있다. 특유의 향미가 있는 취나물은 칼륨·비타민 C·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일칼리성 식품으로 춘곤증 예방에 좋다.

나마 품귀현상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왕겨 유통체계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왕겨나 톱밥을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닭·오리 농가들은 전북 등 타 지역의 왕겨 취급업체들로부터 선불까지 주면서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왕겨는 농협이나 개인 RPC(미곡처리장)에서 가공한 부산물로 개별 농가들에 보급 판매업체가 이뤄지지 않고 개별 등록된 왕겨 전문업체와의 1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통돼 농가들이 이를 업체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강진천변 생태공원

탐방객 많이 찾는다

전국 첫 저류지인 '강진천변 생태공원'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천변 생태공원'에 탐방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은 10만㎡의 부지에 수목식재와 잔디광장 조성, 산책로와 수변테크, 목교, 식물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고 총 15만㎡에 이르는 저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생태공원을 적극 이용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축사깎집용 벼 왕겨 어디없소"

농가 품귀현상 ... 가격 두배 뛰어 대책 서둘러야

농·어촌 지역 축사깎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벼 왕겨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전남도내 일선 시·군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소·닭·오리 등의 가축 농가가 늘면서 깎집용 왕겨가 제때 공급이 미치지 못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가격마저 경총 뛰어 농가들이 왕겨 팔탈전을 벌이고 있다. 한우사육 두수가 4만8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흥지역의 경우 깎집용으로 흡수율이 높아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벼 왕겨를 제때

구하지 못해 비싼 가격에 수입산 톱밥을 송아지 때만 깔아주다가, 성우(成牛) 시기가 되면 맨바닥에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왕겨품귀 현상은 닭, 오리 등 가축사육 농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쌀소비 감소로 미곡가공량이 감소해 왕겨생산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닭 1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백한주(61·장흥군 용산면)씨는 "지난해까지 kg당 80~90원에 거래됐던 왕겨 값이 올해는 무려 100% 가까이 뛰어서 17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그

나마 품귀현상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왕겨 유통체계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왕겨나 톱밥을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닭·오리 농가들은 전북 등 타 지역의 왕겨 취급업체들로부터 선불까지 주면서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왕겨는 농협이나 개인 RPC(미곡처리장)에서 가공한 부산물로 개별 농가들에 보급 판매업체가 이뤄지지 않고 개별 등록된 왕겨 전문업체와의 1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통돼 농가들이 이를 업체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군 주요 도로변

'헛개나무 거리' 조성



장흥군이 '헛개나무 거리'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기관·사회단체장, 마을이장,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곡리 거개마을 등에서 헛개나무를 식재했다. <사진> 이번 헛개나무 거리조성 행사는 귀농자이면서 헛개영농조합을 설립한 김대일(32) 대표가 헛개나무 150그루를 기증해 이뤄졌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배산사거리~우봉, 재암산 주차장 일원, 북교 1구~보성군 운치면, 용곡리 거개 등 주요 도로변 5km에 '헛개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 용곡·하산지구 산촌생태마을에는 282그루를 식재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뚜렷한 소득작목 없이 바·표고·담배 등을 소규모로 재배해 왔으나, 지난 2005년부터 헛개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지역특화 품종으로 집중 육성, 지난해 12월 현재 150ha에서 헛개나무를 재배해 전국 37%, 전남 8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곡성 멜론 명품화 박차

郡, 유통시설 현대화·홍보판촉 나서

곡성군이 멜론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07년 명품 멜론 생산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곡성멜론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멜론 클러스터사업은 멜론 전 체농가의 60% 이상인 200여 농가가 주주로 참여해 곡성멜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통합 브랜드개발 ▲홍보판촉 등 곡성 멜론의 네트워킹 구축과 마케팅 분야에 중점을 뒀다. 곡성 멜론은 그동안 서울관광중심으로 출하했으나 지난해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로 다변화해 소비자 인지도향상에 주력하고 고령 판

매망을 확보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는 프리미엄 곡성멜론이 서울·부산 등 백화점에서 8kg 상자당 12만원에 판매되는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곡성군은 올해부터 3년간 곡성멜론 명품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의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전문 기술지원단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명품멜론 생산기술은 물론 비과과선별기를 이용한 선별과 출하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최고의 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화순 농산물 쇼핑몰 '파머리아' 인기

올 판매 목표 2억 달성 무난할듯

화순군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파머리아'가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농산물 브랜드 '자연속' 쇼핑몰 운영실적이 5000만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액 2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6000만원, 지난해 1억 4000만원에 이어 파머리아 시스템이 운영된 지 2년 만에 판매고가 급신장하고 있다. '파머리아'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 더덕,

한약초, 한우 등 10대 농특산품이다. '파머리아'는 '파머'(Farmer)와 '나인'(Utopia)의 합성어로, 농산물의 생산·홍보·유통·판매를 시스템화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해 농장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 직거래 공간을 확대하고 공간상으로 한정했던 판로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호성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임야(농장·모자적합)
-니주·봉황 3,730평 (m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독서실 임대
-동구 대우동 동부경찰서 인근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보이 1억5천만 월390만원 (관리비 포함)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5천만 월30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 011-68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렌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경우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산공인중개사 T.081-5686 H.011-801-5354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근·편, 삼성화재빌딩(4면 경로변)
\*C1지역, 약 2,650㎡ (188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중형빌딩/상가/오피스/유통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위치: 전남 강진군 칠랑면 칠랑농공단지 앞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810㎡
\*특징
-주유시설상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명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8월 원금 칠랑농공단지상 유입주유소
\*매매가: 1억 7천만원

태양광부지 구함, 운영 중인 중형마트 (150-300평) 임대구함, 토지매매.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역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안료 조망양호.
\*광산구 산월동 보존병원앞 9,722㎡ 3.3㎡당5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니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니주 왕곡면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니주 봉황면 각동리14,093㎡ 3.3㎡당 48,000원. 계획,생산지역.
\*영암 군서 양장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지역.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지역.
아담공인중개사 TEL : 010-3616-8698
\*위치: 법원 일출장 건너편 \*관리분석·현장답사·임찰대행·나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명도(이사)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소매지/면적/건물/건평/최저가
광산구 선암동 284/928 741㎡ 4942/741
남구 갈매동 317/1220 1796/1211 8942/894
동문 237/1028 1046/1011 7942/394
공평 281/1112 1611/1112 12942/894
대안동 271/672 394/728 1942/894
산수동 183/115 394/728 1942/894
충성동 787/870 894/728 6942/394
충성동 202/192 1942/294 1942/394
충성동 542/845 1194/394 7942/394
오지동 384/878 894/728 3942/494
광동동 536/7583 12942/194 4942/894
지역/소매지/면적/건물/건평/최저가
광산구 선암동 284/928 741㎡ 4942/741
남구 갈매동 317/1220 1796/1211 8942/894
동문 237/1028 1046/1011 7942/394
공평 281/1112 1611/1112 12942/894
대안동 271/672 394/728 1942/894
산수동 183/115 394/728 1942/894
충성동 787/870 894/728 6942/394
충성동 202/192 1942/294 1942/394
충성동 542/845 1194/394 7942/394
오지동 384/878 894/728 3942/494
광동동 536/7583 12942/194 4942/894
지역/소매지/면적/건물/건평/최저가
광산구 선암동 284/928 741㎡ 4942/741
남구 갈매동 317/1220 1796/1211 8942/894
동문 237/1028 1046/1011 7942/394
공평 281/1112 1611/1112 12942/894
대안동 271/672 394/728 1942/894
산수동 183/115 394/728 1942/894
충성동 787/870 894/728 6942/394
충성동 202/192 1942/294 1942/394
충성동 542/845 1194/394 7942/394
오지동 384/878 894/728 3942/494
광동동 536/7583 12942/194 4942/894
지역/소매지/면적/건물/건평/최저가
광산구 선암동 284/928 741㎡ 4942/741
남구 갈매동 317/1220 1796/1211 8942/894
동문 237/1028 1046/1011 7942/394
공평 281/1112 1611/1112 12942/894
대안동 271/672 394/728 1942/894
산수동 183/115 394/728 1942/894
충성동 787/870 894/728 6942/394
충성동 202/192 1942/294 1942/394
충성동 542/845 1194/394 7942/394
오지동 384/878 894/728 3942/494
광동동 536/7583 12942/194 4942/894